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9호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 고홍길/편집인: 조영기/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속기과 전화788-2371 7 FAX:788-3560 4

제34회 정기총회 소식



협회는 2001년 2월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 2000년도 결산과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을 선출했다.

먼저 이경식 총무이사의 개회선언과 함께 국민의례, 성원보고에 이어 지난 2000년 6월10일 개최된 제8회 전국속기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그리고 권용태 회장직무대행의 인사말에 이어 최황수 이사장이 주재한 이후 회의에서는 2000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임원선임의 건 등 부의안건을 다루었다. 회원들의 별다른 의견 없이 2000년도 결산과 200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손숙자 회원의 동의로 회장단에 일임된 정관변경의 주요내용은 기존 2인이었던 부회장을 5인으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회장단과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신임회장에는 이희규 의원(새천년민주당·경기 이천 출신)이 추대되었고 부회장단에는 김기영(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수석전문위원)회원, 최황수 회원, 정명길 회원, 박광택 회원, 고태중 회원이, 자문위원으로는 권용태 회원, 신세화 회원, 황인하 회원, 성천영 회원, 채강희 회원, 김선필 회원, 한동춘 회원이 각각 추대되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현재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이희규 신임회장은 속기사들 앞에 서니 수만 명의 유권자들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떨린다고 말씀을 시작한 후 사학을 전공한 분답게 중국 사마천의 일화를 예로 드시면서 역사의 기록에 대한 경외심과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회원들 스스로 '역사의 증언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준다면 속기협회의 일원이 된 기쁨과 함께 회원들의 심부름꾼과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회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등단한 신임 신회동 이사장은 지난 34년간의 세월을 돌아보니 오늘 이 순간까지 항상 속기가 곁에 있어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하며 이제는 속기를 위해 무엇인가 할 때가 되었다,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해 회원들의 사기는 한껏 고무되었다.

그리고 신임감사로는 김창진 회원과 김재학 회원이 선임되었으며 21명의 이사들은 회장진에 일임하기로 했는데 기타사항으로 임재룡 회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속기사들을 대변하기 위해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회의회장과 운영부장 등 2명을 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올해부터 지방의회회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회장 인사



▷약력 : 국회의원(국회건설교통위원/ 이천북중·고, 단국대 사학과 졸/ 美롱아일랜드대학원 졸 (정치학석사)/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상임대표/ 2001세계도자기EXPO 추진위원/ 새천년민주당 청년위원장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지난 2월10일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회원 여러분에게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속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대한속기협회의 회장직을 맡은 것은 정말 큰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2顛3起 끝에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국민을 위해 일하려고 民意의 殿堂인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속기인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알지 못했는데 16대 국회의원으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결과 속기인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史草를 기록하는 역사의 증언자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기록이라는 것은 문명 발생 초기부터 생겨났고 또 세기를 거듭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록이라는 것이 없다면 前代에 있었던 일을 現代가 알 수 없고 現代의 일을 後代에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록은 그 자체가 문화요, 유물로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증명하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속기협회에서 발간한 [한국속기 50년사]라는 책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지난 50년간 속기의 변천사와 함께 제헌국회 이래 현재 16대까지의 기록이 한 字의 덜함이나 더함도 없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역사의 증언이요, 귀한 史草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록의 역사를 엮어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속기협회 회원이 된 것을 진정으로 고맙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속기협회는 55년 창립한 이래 활동이 그리 왕성하지는 않았지만 記錄報國의 사명감으로 묵묵히 議會史를 기록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 협회는 전·현직 속기사와 속기관련 교육인 및 경영인 등으로 이루어져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위상정립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입니다. 마우스 하나로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지식이 있어도 빠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된다는 것은 아날로그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디지털 사고(digital thinking)를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정확히 판단해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사고와 패러다임으로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記錄文化도 이와 같은 환경변화와 궤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記錄文化가 없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존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記錄文化의 發展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강대국일수록 기록을 중요시 여깁니다. 기록을 중요시 여기고 귀중하게 여길 때 그 민족과 국가의 발전이 기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맡겨 주신 재임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모든 일을 상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회 차원의 고민거리가 있다면 미력하나마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속기협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협회 회원들 또한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會 長 李 熙 圭

신임 이사장 인사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34회 총회에서 대한속기협회 7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신희동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훌륭하게 협회를 이끌어오신 역대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이사장님들의 뒤를 이어 협회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두려움이 앞섭니다. 특히 IMF 등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협회를 이끌어오신 지대섭 전 회장님과 권용태·신세화 부회장님 그리고 최황수 전 이사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새 임기 중 우리 협회 운영의 방향과 포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速記界의 선배들과 역대 임원진이 키워온 대한속기협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속기사와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여러 선배 및 동료 회원들과 더불어 지혜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협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회원들에게 다양한 친목도모의 기회 및 혜택을 제공하고 속기학술세미나를 비롯하여 인터스테노 활동, 지속적인 속기학술연구, 속기정보화사업 등 여러 부문에서 문화관광부가 인가한 문화단체로서 그에 걸맞는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개발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러한 기본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키우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한속기협회는 그야말로 회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소수 집행부의 결정보다는 좀 더디게 나아가더라도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함께 기쁨을 만들고 속기계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간의 신속한 정보교류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열린 공간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적극 수렴하는 대한속기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

서 대한속기협회 창설 이래 처음으로 지방의회 속기사가 이사로 선임된 것을 계기로, 그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협회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신 지방의회 회원 여러분의 진솔한 목소리가 집행부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큰 나무를 만드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듯이 우리 속기인 한사람 한사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와 참여가 기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이때 협회의 위상은 물론 속기사 바로 여러분의 위상을 높이는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도 어느덧 왕성한 봄기운에 저만치 물러난 듯합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새봄, 李熙圭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저희 새 집행부는 변함없는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기대하며 새로운 각오로 협회를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 자신 속기와 인연을 맺은 지 34년째가 되는 이제, 속기계를 위해서 무언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성실한 일꾼으로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理 事 長 申 熙 東

제187차 이사회 소식

3월15일 오전 10시30분에 제187차 이사회가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이사회는 회장님과 집행부가 새로 구성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먼저 신임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는 후 이경식 전 총무이사로부터 ▲회장님께 협회 업무보고(01.2.20) ▲법인정기보고(01.2.27) ▲정관개정 허가신청 - 2인에서 5인으로 부회장단 증원(01.2.27) ▲재정현황보고(01.3월 현재) 등의 보고사항을 들었다. 보고사항이 끝난 후에는 2건의 부의안건(부서장선임의건, 부장임명건의)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기타사항으로 2001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문광부로부터 예산감액을 요구받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협회 고문 세 분(김진기, 안인영, 정원도)은 종전대로 두며 자문위원으로 권용태, 신세화, 황인하, 성천영, 채강희, 김선필, 한동춘 회원을 위촉하였다. 이어서 지방의회속기사협회의 이사 2인 요구문제는 총회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정기총회 시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올해는 지방의회협의회장을 이사로 하고 운영부장을 이사회에 참관토록 하며 효율적인 회원관리와 협회홍보를 위해 지방에 회원부장을 두는 것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외에 홈페이지 이용증가에 따른 홈페이지관리 전담부서를 회원부로 하고 총무부와 홍보부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한 후 오전 11시37분에 산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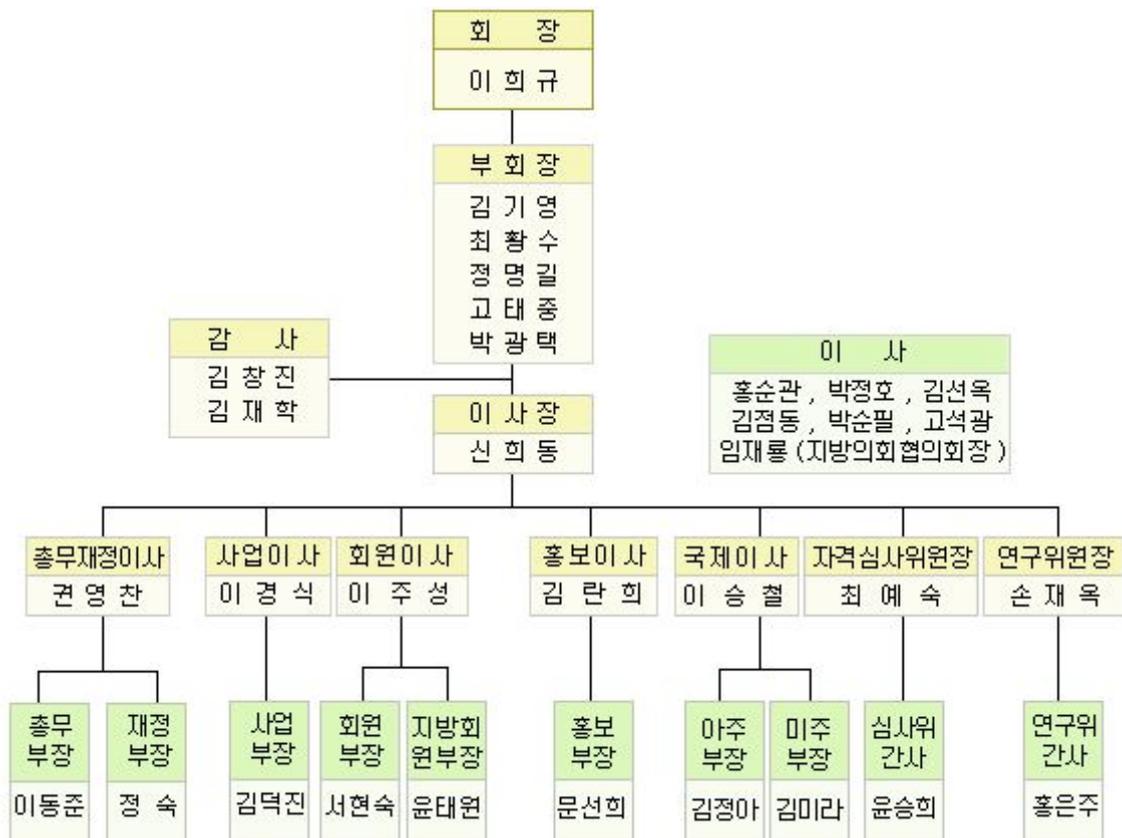
이사회가 끝난 후에는 신임 李熙圭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나누면서 담소, 회장님께서 임원진들에 대한 믿음 위에서 열심히 심부름할 것을 약속하셨으며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위상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셨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www.steno.or.kr에 들어오시면 협회소식 및 속기계·소식지 등 협회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회원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다양한 정보공유가 가능합니다.

www.steno.or.kr에서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립니다.

임원 및 기구표



각 부 소식

국제부

■ 인터스테노 총회

제43차 인터스테노 총회가 2001년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의 일정으로 독일의 하노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회속기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속기인들의 모임인 인터스테노 총회에 참가함으로써 세계 속기계의 동향과 각국 의회의 변화되어진 기록방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부

■ 속기학술세미나

협회 사업부에서는 6월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2001년도 제9회 속기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속기학술세미나는 해마다 6월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되었는데 올해의 세미나 장소와 일정 등 세부계획은 5월 중 확정될 것이라 한다.

■ 연구위원회

■ 속기연구논문집 발간사업

협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보다 나은 속기법 개발과 회의록 발간에 관한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하며 향후 발간될 속기연구논문집에 게재·배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회원들은 협회 연구위원회(02-788-2372,24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자격심사위원회

■ 속기경기대회

2001년도 제9회 속기경기대회가 6월9일 개최될 예정이다. 매년 속기학술세미나 첫날에 치러졌던 전례대로 올해도 세미나 첫날 열릴 예정이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 한다.

■ 총무부

■ 문화관광부 보고

협회는 2월27일 문화관광부에 2000년도 결산과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정기보고와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3월6일자로 허가가 있었고 200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해 재조정 요구가 있어 3월9일자로 재조정하여 제출하였으며 현재 승인 검토 중으로 3월 말 교부예정이다.

■ 회원부

■ 속기정보화관련 워크샵

협회 회원부에서는 속기정보화와 관련하여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역시·도 단위의 지방의회 속기사들을 대상으로 국회회의록웹시스템, 협회홈페이지 분석 및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의 다양화 등에 대한 워크샵을 각 시·도별로 개최할 예정인데 자세한 일정과 내용 등은 추후 각 의회 일정 및 지역 사정에 따라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중의원 속기사(쓰시마) 한국 방문☆

1999년 미국 법정속기사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차 방문했던 속기협회 회원들과 작년 호주 의회를 방문했던 속기협회 회원들의 일본방문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일본 중의원 속기사 쓰시마 씨가 지난 8월 말경 3박4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사적인 목적(한국어 연수)이었지만 국회를 방문하였고 회원들(장미경 회원, 김정아 회원, 김영중 회원, 서현숙 회원, 김미라 회원)과 좋은 시간을 가졌다.

지방의회 소식

▷진천군편

전국 최초 원탁으로 바뀐 본회의장

(진천군, 의회 권위주의 탈피 - 효율적인 진행)



<개조공사 전>



<개조공사 후>

진천군의회(의장 정용기·鄭龍其)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회의장의 의원석과 집행부석을 원탁형으로 바꿔 2001년 2월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군의회는 최근 본회의장 개조공사를 벌여 의원들과 집행부가 동글게 마주앉아 토론할 수 있는 원탁형으로 변경했다. 단상에 높이 설치돼 있던 의장석도 없애고 평의원들과 같은 좌석에 배치했다. 의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질문하고 집행부가 단상에 '끌려나와(?)' 긴장된 상태로 답변하던 기존의 본회의장 분위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의원들은 군정질문, 건의안 낭독, 5분발언 등 특별한 경우에만 별도로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고, 일반 질의를 할 때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발언한다. 집행부 관계자들도 의자에 앉아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듣고 곧바로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좌석배치가 바뀌면서 본회의장이 딱딱한 질의·응답 대신 화기에애한 토론 분위기로 탈바꿈하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으로 회의시간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군의회는 작년 4월 해외연수 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 시의회를 방문, 원탁형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이를 모델로 새로운 형태의 회의장을 꾸몄다.

(진천군의회 속기사 이용복)

회 원 동 정

♡승진 · 축하합니다.

- 김치원(국회사무처)/부이사관→이사관,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01.2.8)
- 하양배(국회도서관)/서기관→부이사관, 입법정보지원과장(01.02.19)
- 최미영(파주시의회)/8급→7급(01.3.5)

♡퇴직 ·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원(대구광역시 중구의회)/(00.10.16)

♡복귀 · 반갑습니다.

- 조미경/대한민국헌정회→국회사무처 속기2과(01.2.24)

♡교육/연수 · 수고하셨습니다.

- 성천영 기록심의관(국회사무처)/미국 단기해외연수(01.3.29~01.4.11)
- 안기철·고경효·조신자 회원(국회사무처)/단기해외연수(01.3.26~01.4.6)
- 유영란(서울시 마포구의회)·이기옥·우순덕·윤영선(경상남도의회)·권은선(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지방의회직원연수과정(국회사무처 연수국)(01.3.12~01.3.16)

♡결혼 · 축하합니다.

- 이동윤(남해군의회)(01.12.24)

♡기타소식

- 김재학 회원/나이키대리점 롯데마그넷점 개업(00.9.30)
- 이정구 회원/이제농장 개업(00.5)
- 윤태원 회원/윤컴system 개업(01.1.1)
- 허광현 회원/세종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01.2.24)
- 전난영 회원/충남 당진군 합덕초등학교 → 서정초등학교로 전근(01.3.1)
- 이화경 회원/대한속기협회 홍보부 편집기자로 선임(01.3)

♡전국지방의회속기사협의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 회장 임재룡 회원(대전광역시의회)
- 운영부장 윤태원 회원(윤컴시스템)
- 총무국장 김일호 회원(충청남도의회)
- 사업국장 신종식 회원(대전광역시의회)
- 재무국장 이기옥 회원(경상남도의회)
- 홍보국장 이화경 회원(수원시의회)